

##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의 성립과 전개

###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 성립: 브레튼우즈 체제

- 미국 달러화를 **기축통화**로 하는 금환본위제도 실시: 금 1온스 = 35달러
- 자유 무역 진흥을 위해 WTO와 같은 ITO 창설 계획 But 대신 **GATT 체결**
- 달러를 기축 통화 인정 → **경제 패권국**으로 부상 But 4가지 약속을 함
  1. 금태환제 실시(실물 금 보유,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줌)
  2. 자유 무역을 실시해 미국 시장을 개방
  3. 외환 위기 국가에 대한 **달러 대출과 구조조정** 실시
  4. **IBRD(World Bank의 전신)**을 통해 **저개발 국가의 경제 발전**을 지원

### 고정 환율 제도 위기

- **트리핀 딜레마**: 1950년대 미국에서 장기간 이어진 경상 수지 적자 때문에 해당 개념 등장
  - IF 미국이 경상 흑자 → 누가 **국제 유동성**을 공급함?
  - 적자 상태가 지속 → 달러화 과잉 공급 → 달러화 가치 하락 → 신뢰도 저하 & 고정환율제도 붕괴

### 닉슨 충격

- 1971년 8월 15일 **금태환 정지 선언**
-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폐지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중지 → 사실상 붕괴
- 1973년 브레튼 우즈 체제는 사실상 **변동 환율 제도**로 대체

###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과정의 임시체제: 스미소니언 협정

- 금 1온스 = 35\$ → **달러 평가 절하** → 금 1온스 = 38.02달러
- 마르크화, 엔화 등 각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평가 절상
- **각국이 변동 환율제로 이행** → 스미소니언 협정 파기
- 미국 경상수지 적자 누적 → 달러 가치 하락 → 스미소니언 체제 사실상 붕괴

###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 수정: 달러지수 체제

- **달러 지수**
  - 세계 주요 6개 통화(유로, 엔, 파운드, 캐나다 달러, 스웨덴 크로나, 스위스 프랑) 가치에 경제 규모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산출한 값을 미국 달러와 비교한 지표
  - **가중 평균**
- 위 6개국 통화 = **준기축통화**

###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 수정: 페트로 달러 시스템

- 사우디-키신저 밀약(1975)
- 미국이 사우디에 안보 우산 제공 → OPEC의 석유 대급을 전부 달러로 결제하기로 합의
- 원유 결제가 달러로만 이루어짐 → 달러 가치 폭증
- 금 본위제 → 석유 본위제

### 베트남 전쟁(1975년)이후 전환: 킹스턴 체제

- 1976년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에서 체결된 체제로 현재까지 유지중
- 각국이 환율 제도를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게 함 → non-System
- IMF 회원국 모두 변동 환율제와 고정 환율제 중 자유롭게 환율제도 선택
- 달러와 금과의 관계 단절 → **금태환 중지 이후 이를 공식화**

## 각국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변화 요인

1. 미국 실질 기준 금리 대비 해당 실질 기준 금리 차이 ( $\uparrow \rightarrow \uparrow$ )
2. 전세계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 지수 ( $\uparrow \rightarrow \uparrow$ )
3. 중앙은행의 통화량 확대와 인플레이션 ( $\uparrow \rightarrow \uparrow$ )
4. 각국 FDI 유입 규모(직+간) ( $\uparrow \rightarrow \downarrow$ )
5. 각국 GDP 성장률(내수시장 경기 전망) ( $\uparrow \rightarrow \downarrow$ )
6. 각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 ( $\uparrow \rightarrow \downarrow$ )
7.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(달러 매도) ( $\uparrow \rightarrow \downarrow$ )

## 트럼프 관세 부과 정책의 의미와 전망

- 달러 기축통화(브레튼우즈 체제)에 대한 4가지 약속으로부터의 해방?
  - 트리핀 딜레마(**달러 신뢰성 유지 VS 세계경제발전**)로부터의 해방?
1. **금태환제 실시**: 달러 가치 유지 약속
    - → 달러인덱스 체제로 전환해 달러의 상대적 가치 유지(6개국과 기축통화 공유)
  2. **자유무역 실시(미국 시장 개방)** → 타국이 달러 확보할 수 있도록 약속
    - → 약속 파기(충분한 외환보유고 공급)
  3. IMF를 통해 달러 부족 외환위기 국가에 대한 **달러 대출과 구조조정 실시**
    - → IMF 기능 유지(각국의 자발적 구조조정 실시)
  4. **\*\*IBRD(WorldBank의 전신)\*\***을 통해 저개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달러차관과 원조 자금 공급
    - → **US AID 사실상 해체, WB 유지**

## 2025년 2월자

- 미국의 무역 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는 4월 이후에는 미국과 주요 적자국 간 갈등과 협상 국면이 본격화 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
- 미 관세 정책은 취임 이전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
- 우리나라 대미 흑자의 상당 부분: 자본재 수출로 발생 → 이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커진다는 점을 강조
- 조선, 원자력, AI 산업에서 기술협력 강화로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 →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제시

## 환율 변화의 장, 단기 물가 전가 효과 추정 결과

- CPI에 대한 원/달러 환율의 전가 효과는 환율 변동률 10%p 상승 시 → 단기 효과 0.28%p, 장기 효과 0.19%p로 추정
-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상당기간(3개월 이상) 유지된 시기만을 대상으로 환율 전가효과를 보면 단기 효과와 장기효과가 모두 증가 But 장기 효과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.
- 금년 하반기에도 잠재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